

지진과 함께하는 삶



김 양 평 의
일본 이야기

최근 업무차 혹은 여행으로 일본을 방문할 일이 생겨 최신 정보를 알아보려 검색해 보면 ‘일본 7월 지진 예언’ 관련 글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특히 홍콩에서는 이 소문이 확산하며 여행 취소가 늘어나고 고객이 줄어 홍콩 항공사에서 일본 노선을 줄인다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다. 정말로 7월에는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인가? 대지진 발생 여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2~3일 정도 짧은 기간 일본에 머물면서 지진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한 달 정도만 생활해 보아도 두어 차례 지진을 맞이하게 되고 지진이 그리 낮은 일이 아니게 된다. 처음에는 땅이 흔들린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자다가 일어나 피난처를 찾기도 하고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 일본인이 평안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서는 자신도 점점 지진에 대해 무디어지게 된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

다 보니 TV 방송에서는 수시로 지진 대피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 가든지 지진 발생 때 대피 장소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지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진에 대한 교육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일본의 아이들도 한국과 차이 없이 3살이 되면 유치원에 입학한다. 필자의 큰아도 3살이 되면서 4월에 일본의 공립 유치원에 입학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난 5월의 어느 날,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일본어가 서투른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늘 걱정이 되었기에 다른 일정을 모두 제쳐두고 참관 수업 시간에 맞추어 유치원에 방문했다.

처음에 도착하니 학부모들은 교실이 있는 곳이 아닌 운동장으로 안내되었다. 참관 수업인데 왜 운동장에서 기다리라고 하는지 궁금한 마음이 커지는 순간, 유치원 스피커에서 지진 모의 훈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울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교실마다 문이 열리더니 보호 모자를 쓴 아이들이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한 줄로 차분하게 줄을 서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한눈팔고 두리번거리는 아이 하나 없이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하고 있었다. 그 속에는 우리 애도 있었고 그 광경을 보고선 ‘역시 여기는 일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참관 수업 첫째 시간이 지진 대피 훈련이었다는 것이다. 지진이 일상이다 보니 언어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에게 지진 대피 요령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단체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게 교육했다는 것이다. 보통 3살짜리 아이들은 부모가 눈에 보이면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어리광을 부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진 대피 훈련을 하는 도중에는 아빠, 엄마를 보고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지진에 대한 위기의식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았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필자는 주변의 일본인들에게 물어보았다. 지진이 무섭지 않냐고, 안전한 곳으로 피난 가는 것이 어땠겠냐고. 돌아온 답은 아주 간단했다. 지진이 무섭긴 하지만 지진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래서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지진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잘 팔리는 ‘K뷰티’… 성장 주체로 진화



김 지 수 첩
이 청 하
(유통&라이프부)

‘K뷰티’는 소비재를 넘어 브랜드를 수출하는 산업이 됐고, 브랜드 주인이 바뀌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뷰티 브랜드사이자 유통사인 구다이글로벌이 주목받는다.

구다이글로벌은 일찍이 한방화장품 ‘조선킨미녀’를 직접 운영해 왔고, 티르티르, 라카, 스킨1004 등을 연달아 인수했다. 해당 브랜드들은 모두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 해외 전역에서 K뷰티 대표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현지에서 판매고를 올리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한다.

구다이글로벌은 최근 들어 ‘스킨푸드’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어 신생 인디뷰티 브랜드 외에 기존 1세대 브랜드의 부활에 대

한 기대감까지 높인다. 궁극적으로는 메이 크업부터 스킨케어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자회사로 편입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지속성과 기업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다이글로벌의 사업 전략은 K뷰티 산업의 핵심 과제를 ‘소유 문제’에서 ‘성장 방식’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이 과제는 브랜드를 누가 낳았는지와 어떻게 키워내느냐를 동시에 고민하게 한다.

앞서 K뷰티는 잘 팔리는 산업으로 커왔다.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화장품’이 수출 효과 상품으로 부상함은 물론, 국내 브랜드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선택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 화장품기업 로레알그룹이 지난 2018년 국내 색조 브랜드 3CE를 인수한 사례는 6000억원의 신화로 회자된다.

이러한 성공 신화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다. 이후에도 로레알그룹은 국내 더마

화장품 브랜드 닥터지를 보유한 고운세상 코스메틱까지 인수했다. 또 투자전문기업 모건스탠리PE는 지난해 초 화장품 전문업체 스킨이데아를 인수했다. 스킨이데아의 대표 브랜드는 마스크팩으로 유명세를 구축한 메디필이다. 프랑스 사모펀드 운용사 아키메드는 미용·의료기기 제조사 제이시스메디칼을 인수했다.

이제 잘 팔리는 K뷰티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K뷰티로 진화해야 한다. 이 브랜드들 수년 뒤에도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이기를 바란다. 자칫 소비자 유행의 흐름이나 자본의 손에 맡겨지는 구조에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 한 브랜드 관계자는 ‘독립 브랜드’로서 정체성을 뚜렷히 하고, 자체 기술력, 독자 성분 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장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핵심 자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길 바란다.

/mlee236@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6월 11일 (음 5월 16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과거부터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48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난다. 60년생 다른 사람 시선도 의식해야. 72년생 자존심은 나를 지키 주는 힘. 84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니 일찍 준비하자.



소

37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모두가 자신의 탓. 49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61년생 불필요한 친절은 오히려 해가 된다. 73년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85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호랑이

38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50년생 새로운 정보에 합수를 확인. 62년생 기회가 와도 다른 생각 하다가 놓친다. 74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잠깐계 느껴진다. 86년생 재물을 인한 갈등이 생겨도 양보하면 이익이다.



토끼

39년생 용띠 닭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51년생 강하게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하는 현실. 63년생 자치가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쓰자. 75년생 모든 것은 문서로 남겨라. 87년생 한 번을 참으면 만사가 편하다.



용

40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52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대화에 주의. 64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친다. 76년생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해 외롭다. 88년생 장비일 거리가 들어오니 반갑다.



뱀

41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53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판단. 65년생 운전할 때 양보하라. 77년생 꾸준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89년생 비밀을 간직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일상에 충실.



말

42년생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54년생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자. 66년생 삶의 지혜를 책으로 얻으니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78년생 정든 친구가 떠나간다. 90년생 파란색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될 것이다.



양

43년생 이웃과의 거래가 쉽게 풀린다. 55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67년생 모난 돌이 정 맞으니 오늘은 자중해라. 79년생 생각만하고 정제하면 계속 낙오된다. 91년생 마른논에 물들어 오듯이 영업일이 잘 해결.



원숭이

44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56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늘 내게로 돌아온다. 68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하다. 80년생 무지개가 뜨니 좋은 일이 있겠다. 92년생 자신의 불평을 줄여보도록.



닭

45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57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 69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81년생 작은 선을 행하다보면 복이 오게 마련. 93년생 병이 왔으니 약도 주여지니 희망적인 하루.



개

46년생 안부를 물어봐 주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 58년생 직장에서 좋은 일로 뜻밖의 이동수가 있다. 70년생 자식에게 징검다리가 된다. 82년생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기다림과 신용을 일 순위로. 94년생 좁은 곳에서 원수를 만나는 격이라 난감.



돼지

47년생 망해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59년생 힘든 시기에 배우자가 승진되어 감사. 71년생 주변 상황을 잘 보고 현명하게 행동. 83년생 종일 여의주를 얻은 격이다. 95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으려 하지 말고.

김상회의四季

순수의 시대



사랑해서 만났고, 자식 낳고 살다가 막상 이혼할 때면 피 터지게 그 악스럽게 증오하며 법정 싸움을 벌인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곧 천국에 가는 길이라 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도 보인다. 그 순수함이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탐진치의 용광로가 된다. 그 시점이 아마도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시절 호르몬이 변화되면서 사춘기로 접어드는 그 이후 아닐까 싶다.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발현되는 집단 괴롭힘인 왕따가 초등학교 동심이어야 할 때도 학교문제는 물론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어쩔 사춘기 때보다도 더 빨리 시작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옛날보다 신체 성장이 빨라 조속하다 보니 사춘기가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일까. 선조들은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하여 칠 세 이후부터는 남녀의 유별함을 강조해 온 전통이 있다. 대한민국 전래의 사랑꾼인 이몽룡과 춘향어도 당시 갓 이팔청춘 십육 세라고 돼 있다.

갑자기 ‘순수의 시대’란 영화가 생각난다. 개척 초기 뉴욕 상류층의 일상과 화려함이 보이는데, 나름 성공한 상류층 사람들이 주인공 남녀의 불륜을 다들 눈치챘음에도 품위를 위해 모른 척한다. 불륜의 피해자 역시 아는 체하지 않으며 넘어간다. 이것을 누군가는 위선과 가식이라 말할 수도 있겠다. 결국, 불륜의 당사자들은 자체의 판단으로 열정보다는 가정을 지키게 만드는 결정을 한다. 자칫 희생자가 될 뻔한 약혼녀는 추해질 수도 있었던 가십을 현명한 처신으로 넘겼고, 열정을 따를 뻔했던 약혼남과 약혼녀의 사촌 인니는 도리를 택했다. 아마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나마 그 시절에 순수의 가치가 살아 있었기 때문일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9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3	2		5		
				5	4			
3								9
	4		5		1			3
9	3						5	1
1			6		8		4	
7								2
			9	1				
		9		8	2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ㄱ	ㄷ	9	2	8	ㄴ	6	1	9
9	8	ㄴ	ㄷ	1	6	ㄱ	9	2
2	6	1	9	9	ㄱ	8	ㄴ	
ㄴ	ㄱ	6	8	ㄷ	9	9	2	1
1	9	8	ㄴ	ㄱ	2	9	ㄷ	6
8	9	2	1	6	9	ㄴ	ㄱ	8
6	2	ㄱ	9	ㄴ	8	1	9	8
8	ㄴ	ㄱ	ㄱ	9	1	2	6	9
9	1	9	6	2	8	8	ㄴ	ㄱ

9	6	8	2	1	ㄴ	ㄱ	ㄷ	9
9	8	2	8	9	ㄱ	6	1	ㄴ
ㄱ	ㄴ	1	9	8	6	2	8	9
ㄴ	ㄱ	6	8	9	ㄷ	9	2	1
8	ㄴ	9	1	8	9	ㄷ	6	ㄱ
8	9	6	ㄱ	ㄴ	2	8	9	1
6	9	9	ㄱ	ㄴ	1	ㄴ	8	8
2	8	ㄴ	9	6	9	1	ㄱ	8
1	ㄱ	8	ㄴ	2	8	9	9	6